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제 166 호

2010년 5월 1일

발행인: 변 주 선

home page:

www.sxa.snu.ac.kr

e-mail:

sxa@snu.ac.kr

100-130 서울 중구 순화동 25 바비루 ■ 1807호 전화 : 026399-6500 / 02720-8116 FAX : 02720-8117

2010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장학금 수여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 범은장학재단



제2회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

2010년 5월 28일(금) 18:00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리랑이 왜 저주의 노래인가요?

- 아리랑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여-

李 東 植 (英語 · 72)

KBS 정책기획센터장

청연회 회장

2003년 첫 출간 이후 전 세계에서 8천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초대형 베스트셀러(다빈치 코드(DaVinci Code))의 작가 댄 브라운(45)이 6년 만에 새 소설(로스트 심볼(Lost Symbol))을 지난 9월 발표했다. 당연히 한국의 출판계도 덩벼들어 한국어판도 발간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몇몇 신문사 특파원들이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작가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댄 브라운은 한국특파원들에게 예고도 없이 아리랑 음원을 들려주었다. 그것도 완벽하게 알려주는 것, 시인인 즉 대학 시절 대중음악 연주단에 들어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서울에 4, 5일 머물렀고 그때 한국인요 아리랑을 배웠다는 것. 갑자기 '아리랑'을 들은 몇몇 한국특파원이 이렇게 물은 모양이다. '아리랑이 무슨 노래인지 아느냐?'

이에 대한 답변이 재미있다. 먼저 중앙일보 특파 그는 1983년 한국 방문 당시 뜻도 모르고 즐겨 들었던는 아리랑의 운조·가사를 정확히 기억했다. 한 구절 직접 부르기도 했다. 기자가 '이별노래(breakup song)'라고 설명하자 "놀리는 거 아냐(You're kidding)"며 놀라워했다.

다음 조선일보: 댄 브라운은 갑자기 아리랑 가락을 읊조렸다. 아리랑은 가장 한국적 곡조의 노래이지만, 내용은 일종의 '저주(Curse)'를 담은 이별가라고 일러줬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방이 떠나기도 똑 웃었다.

두 신문 기사를 보니 아마도 누군가가 아리랑에 대해서 '저주를 담은 이별노래(breakup song which contains the curse)'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해서 작가 댄 브라운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웃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리랑'이란 우리 민요가 과연 '저주를 담은 이별가'였던가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아리랑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 노래에 저주가 담겨있던 말이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랑의 가사는 1절에 나를 버리고 가는 너는 십리도 못가서 발행난다고 해서 마치 저주를 한듯한 느낌을 가질 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의 애환을 그리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1절도 저주가 아니라 일종의 원망이나 체념을 뜻하는 말이지, 어찌 이



것이 '저주'가 될 수 있겠는가?

아리랑은 가장 기본인 아리랑 외에도 정선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경기도 아리랑 등 지역마다의 아리랑이 있고, 신산(申山)아리랑, 별오(別鄕)아리랑, 긴아리랑, 아리랑세상 등의 변이형이 있는 등 무한히 길고, 발전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한국의 '아리랑'은 형식면에서는 2행의 간결한 시어를 후렴구를 써서 반복해서 부르는 긴 노래이다. 그런 이

리랑은 우리들의 삶의 애환을 구급할 없이 드러내는 생활민요이며 주된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옳으며, 결코 '저주를 담은 이별노래'가 아닌 것이다. 세계적인 경우라면 '몰 모리'가 1976년에 음반을 내었는데, 그 첫번째 곡이 'Eastern Love Song (Arirang)'이었다. 그렇다. 아리랑은 바로 동방의 사랑노래인 것이다. 그러기에 아리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꼽히고 있는 것이리라.

그런데 왜 우리의 특파원은 이런 아리랑을 '저주를 담은 이별노래'로 알고 있었을까?

분명히 첫 구절을 기억하고 그것의 뜻을 생각해서, 깊이 생각 하지 못하고 급하게 말해준 것이 그리 되었을 것이다. 순간에 일어난 일일어서 그들을 무조건 탓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사랑노래'가 갑자기 없도당도않은 '저주의 노래'로 둔갑을 하니 세계적인 작가로서, 한국을 사랑하던 댄 브라운이 '농담 아냐?'며 놀란 것도 당연할 것이다. 세계 어디에 저주를 품은 노래가 그 민족을 대표하는 민요가 될 수 있단기? 정말로 아리랑이 저주의 노래라면(아마도 댄 브라운은 아리랑을 정말로 저주의 노래로 알게 된다) 앞으로는 잘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곤 그의 작품 속에서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한국의 아리랑을 그렇게 소개할 것임이 틀림이 없다. 우리의 아리랑은 미국의 식자층에게 '저주의 노래'로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지식인들, 특히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중요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언론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문화의 기본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들을 접촉할 때에는 그러한 지식을 당당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3면으로 계속)

■ 鄭基漢(英·60入) 신흥중 교장

◆ 동부전 양주중등교장협의회 회장 선임

鄭基漢 동문은 2010년 3월 1일자로 동부전양주중등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신흥중 교장인 정 동문은 2003년에 교장으로 초빙되어 비전스쿨과 방과후 학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부전양주 지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현재 동부전양주중등교장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JAMI : //ksam.biz ; JAMC : http://www.springer.com/journal/12390
e-mail : chp@sunmoon.ac.kr



■ 郭柄善(教·66入) 한국교육학회

◆ 2010 춘계 학술대회 개회

郭柄善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지난 4월 24일(토)에 「한국교육의 이슈와 행정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0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회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李宗憲(教·64入) 서울대 명예교수의 「한국교육의 이슈와 행정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 외에 영남대 박영민(教·76入) 교수, 포원대申明洙(教·68入) 교수, 동국대 朴富權(教·69入) 교수, 교육과정평가원 趙慶心(대학원) 본부장, 포원대 許炳其(대학원) 교수, 명지대 朴性洙(教·61入) 교장 등 다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 徐廷善(化·60入) 명지전문대학 총장

◆ "2010년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인 대상" 수상

서정선 총장은 지난 3월 4일(목)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에서 진행되는 "2010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2010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은 대국인 리서치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한해 동안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일궈낸 심사를 통해 독창적이고 탁월한 경영 실적을 실현한 각 분야의 최고경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 文能鱗(教·67入) 동문

◆ 문화시민운동협의회회장에 선임

文能鱗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장관)가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장은 문화시민운동의 이론적 뒷받침을 하였으며, 감성지수(EQ)와 다중지능론을 국내에 소개한 교육학자이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고 이영덕(教·48入) 동문이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설립하여 초대 회장을 맡아 친절, 질서, 청결 운동으로 우리나라 거리 문화를 수준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朴智弘(數·61入) 전 선문대 교수

◆ 同業者 求함

장년퇴임 후 JAMI(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and Informatics) 편집장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협력자를 찾고 있다.

(2면에서 계속)

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기본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문화는 결코 남을 저주하는 문화가 아니다. 스스로의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스스로 삭이는 사람들이며, 그냥 조용히 털어놓는 사람들이지, 남이 잘 못되라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이라 할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없었던 말인가?

최근 발간된 'Arirang Song of Korea' 라는 책이 있다. 서울대 사범대 지리과를 나와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교수생활을 하신 이정면 박사가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 아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집대성해서 낸 책이다. 이정면 박사는 지난 11월 중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09 아리랑 세계 국제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오기도 했는데, 아리랑을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살아가기기 쉽지 않은 땅에

서의 슬픔과 고난, 고통을 표현하는 노래'이지만 그것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나 그 노래에 그들의 생각을 담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밝은 빛을 주는, 인내심을 주는 '위대한 노래'로 정의한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노래를 세계로 소개하는 일은 언론인들의 과제이다. 그러려면 언론인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난번 모처럼 한 아리랑 행사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한국에 온 이정면 박사도 그리 주목받지 못하니깐 넬 브라운과의 회견에서 아리랑이 갑자기 '저주를 담은 이별노래'로 둔갑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참으로 언론인들의 올바른 인식과 그에 따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알려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母校 獎學生 15名에 장학증서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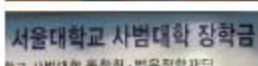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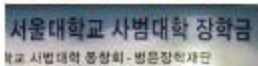
본회 설립 淸冠獎學會는 지난 3월 17일 母校 교수 회의실에서 獎學生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밖에 수여한 장학증서는 淸冠장학회본회 설립에서 5명에서 등록금 전액, 변은장학재단 장학증이 이사장에서 10명에서 각 200만원씩을 수여하였다.

변주선 회장은 동문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10명의 학생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신 장학증서 변은장학재단 이사장님께 고마움을 표하였다.

장충식 이사장께서는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시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다음부터는 변은장학재단도 등록금 전액으로 중역을 것이며, 기회가 된다면 장학금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 등 다른 행사를 통하여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용욱 사범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준 동창회와 변은장학재단의 장충식 이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 뜻을 받들어 우리 학생들이 국가와 사회에 나가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열심히 지도교육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학생대표로 나온 사회교육과의 최은경 양은 담사를 통해 선배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어 더욱 영광스러우며,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그 정성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주선 회장과 장충식 이사장, 김용욱 학장 외에 모교에서는 부학장단과 각 학과장 그리고 동창회에서는 임원과 각과 동문회장들이 참석했다.



고문회의 개최

지난 3월 31일에 개최된 고문회의에는 모처럼 미국에서 귀국하신 박지수(慶-48) 고문께서 참석하여 반가움을 더해 주었다.

89세의 박 고문께서는 건강할 모습으로 옛날 입심과 유머를 잃지 않고서 장차자들을 즐겁게 하며 옛날이야기로 웃을 피웠다.

고문회의는 우리 동창회의 회장을 지내셨던 분들의 모임으로 가끔 한자리에 모여 동창회의 일에 대한 자문도 하고, 모처럼 만나 회로도 볼기위해 마련하는 자리이다.

이같은 것은 일로하신 고문님들이 병석에 계시기도 하며, 한분 한분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서모가 안타까워할 뿐이다.



2010 동문 친목 동산대회

지난 4월 10일(土) 모교 교수회관 앞에서 동문 친목 동산대회를 가졌다. 10시부터 삼삼오오 시작된 동반은 관악산 등반대회, 교내 경기 형으로 나누었고, 12시 30분부터 잔디밭에서 동창회가 준비한 막걸리를 곁들인 점심식사를 하며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단리하였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이 특별히 맛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웠던 점은 굵은 납치 맛도 있었겠으나, 참가자가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자칫 동산대회의 존재여부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서울·인천지역 동문 간담회

- 4. 28.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서울·인천지역 동문 간담회가 지난 4월 28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7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에서 30여 동문이 인천에서 40여 동문이 참석한 간담회는 7층의 동북아무역센터(NEATT) 전당에 관할 후라마다 호텔에서 오찬을 겸해 가졌다.

변주선 동창회장의 인사에 이어, 인천회회장인 李相洙(世-68) 인천 남부교육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천지역에서 서울동문 다수가 와서 함께 간담회를 치루어 오고자 했기 때문이므로 뜻깊고 뜻깊은 일로써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安相洙 인천시장의 다음에 이보다 더 성대한 모임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환영사에 이어 李相洙 전 교육부총리의 인천동문들의 따뜻한 환영과 질타에 고맙다는 답사, 인천광역시 인터넷 일대일방송 설명회에 이은 동문들의 열띤 발언들은 사대 동창회의 밝은 앞날과 활성화된 모습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에서, 변주선 회장에 강신주, 좌우선, 김순용, 김병기, 김순오, 유자호, 이상우, 이인규, 장종택, 정용근, 최태상, 최현철, 홍성숙, 홍향순 동문들이, 인천지역에서는



이영운 회장 외에 김길, 오재국, 이강식, 임옥진, 양덕배, 강하구, 원용권, 추연태, 김경자, 서한림 등문 등이 참석했다.

이날의 행사는 서한림 일석방송 회장이 주관하고, 모든 경비를 부담했다.

■ 상임이사, 각과 동문회장, 동호회장 연석회의

지난 4월 29일 본회 상임이사, 각과 동문회장 및 동호회장 연석회의가 있었다.

5월 28일(금) 18시 정기총회를 앞두고 가진 이번 연석회의에는 특별히

많은 동문회장들이 참석하여 동창회의 현안과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통한 방향제시를 해 주었다.

본회에 서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정리, 다음 동창회 회장단에 인계하여 동창회 운영계획에 참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동창회 운영이나 회의에 각과 동문회장들이 적극 참석하여, 동창회와 각과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 발전을 모색키로 했다.



■ 卞柱仙(英·60入) 회장

—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에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林光洙)는 최근 卞柱仙 본회 회장을 비롯한 60여명의 부회장단을 구성하였다. 서울대 총동창회의 부회장은 사회각 분야를 대표하여 동창회와 교묘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할 각 단과대학, 대학원 특별과정 출신 중에서 선임한다.

서울대 총동창회에는 고문에 李錫勳(46入) 전 대통령 영부인, 金鍾浩(46入) 전 국무총리, 鄭元植(48入) 전 국무총리가 있고, 부회장은 卞柱仙 동창회장 외에 본회, 李相國(46入) 고문이 있으며, 사무총장에는 박인수(58入) 동문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

■ 張弼德(化·53入) 동문

— 慶熙萬원기탁

단일시스템(株) 회장이신 장병덕 동문이 지난 3월 30일 본회를 방문하여 회관건립 기금으로 慶熙萬원을 출연하였다.

단일시스템은 아산화질소 국내 총판매회사로 시작, 보전복지 부모부터 의학특례조처가를 특한 의료용 가스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의료용 산소, 의료용 아산화질소, 의료용 질소, 의료용 탈산가스등을 제조하여 각 병원에 납품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 會長 動靜

(10. 2. 25 ~ 4. 30.)

1. 2.26. 서울대 졸업식
3. 1. 동창회보 165호 발간
3. 8. 정관대상 운영위원의 계획
3. 11. 고문회의 계획
3. 17. 사범대학 장학증서 수여
3. 19. 서울대 총동창회 정기총회
4. 10. 동문 동산대의 계획
4. 16. 정관대상 운영위원의 계획
4. 28. 서울-인천지역 동문 간담회(인천 계획)
4. 29. 상임이사, 각과 동문회장, 동호회장 연석회의의 계획

■ 동창회 來訪 人士

(10.3.1.~4.30.)

- 朴智洙(歷史-46) 본회 고문
高寅榮(國語-47) 본회 고문
金尙俊(國語-48) 전 서울시 교육감
南壽軒(歷史-53) 본회 고문
張炳濤(化學-53) 단일시스템(株)
洪學準(化學-53) 전 연북교 교장

- 李相國(敎行-56) 전 교육부총리
鄭元植(生物-58) 전 한국외대 총장
金鍾浩(國語-59) 전 성원중 교장
李錫勳(敎育-59) 본회 감사
俞千暇(敎育-60) 전 구립교 교장
朴炳燮(敎心-60) 전 부산대 교수
李玄男(敎行-60) 전 농수산물관리공사 차장
許泰辰(敎行-60) 전 한국교총 사무차장
金末爾(物理-60) 전 여성부 회장
李淳權(敎育-61) 서무사
林東治(敎育-61) 본회 사업담당 부회장
李煥顯(敎行-61) 전 삼성교 교장
金聖基(敎育-62) 전 경복교 교장
金秀吉(敎育-62) 전 성동교 교장
李玄樞(敎育-62) 전 KBS방송국 심의위원
鄭清源(體育-62) 청사모리리 흥부, 한국스프링스리연구원장
金榮榮(生物-64) 전 여성부 총무
任公燮(家政-64) 전 경기여교 교장
俞玄根(體育-64) 본회 감사

- 高禮寧(英語-65) 영어교육과 회장, (주)마케팅 대표이사
崔英子(英語-65) 전 경인교 교장
崔基根(體育-65) 전 자양교 교장
金範善(物理-66) 물리교육과 회장, 한국외대 교수
李主顯(地球-66) 지구과학교육과 회장, 학교교육지원본부장
孫慶燮(家政-66) 전 성동여자직업고교장
洪泰植(國語-67) 국어교육과 회장, 명지전문대 교수
崔鉉雲(社會-67) 사회교육과 회장, 전 강원대 총장
柳子孝(情語-68) 국제원클럽 부이사장, 전 SBS 이사
方在旭(生物-68) 생물교육과 회장, 충남대 교수
李柄好(英語-70) 서울국제고등학교장
李元根(國語-71) 전 한국교총 회장
金暉子(數學-71) (주)국일판 이사
高永基(體育-72) 한양정신학과 학장

이 회보는 천재교육 崔容準(數·61入) 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제2회 淸冠大賞

師道賞에 崔泰祥 前 경북고 교장

學術賞에 李琦錫 서울대 명예교수

功勞賞에 崔容準 (株)天才教育 회장

사범대 동창회는 최근 淸冠大賞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회 淸冠大賞 후보자에 崔泰祥(歷史53入, 師道賞) 前 경북고 교장, 李琦錫(地理59入, 學術賞) 서울대 명예교수, 崔容準(數學61入, 功勞賞) (株)天才教育 회장을 선정했다.



崔泰祥



李琦錫



崔容準

崔 교장은 일선학교에서 敎科의 學識 달임을 받아 熱과 誠으로 弟子를 敎育, 訓導하고 심지어 自宅에서 宿舍를 제공하고 함께 생활하며 人才를 育成하여 政·財界 등에 수많은 제자가 지도자로 활약 중이며, 지금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옛 恩師의 諮詢를 求하고, 지도할 정도로 師弟間의 끈끈한 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敎育行政, 學校行政家로서의 能力도 탁월하게 발휘하여, 그의 밑에서 業務를 배운 수많은 후배, 제자가 大學總長, 學校長, 獎學官 등으로 우리나라 敎育의 핵심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다.

李 교수는 30여년간 梨大와 서울대에서 敎授로 재직하면서, 後學指導는 물론 古地圖와 문헌을 통하여 1929년 이후 상한 「東海」명칭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여, 「日本海」와 함

께 「東海」명칭의 併記를 위한 「國際決議」를 이끌어냈고, UN地名전문가 회의와 國際水路 기구 총회 등에서 한국대표로 활동하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공로도 정부로부터 勳政褒章

을 受賞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두만강 하구 慶屯島의 역사적 배경과 緯人 거주 실태, 지난 100년간 서울의 도시 성장에 관한 역사 지리적 분석, 두만강 유역 개발의 적합성 분석과 훈춘-방천, 나진-선봉 지역의 구조적 특성 등을 밝혀 지역 개발의 계획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

崔 회장은 (株)天才敎育을 설립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범대학과 동창회에 각각 기억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여, 동창회관 마련의 기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동창회보 발간비 전액 부담 등 계속하여 동창회의 행사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본인은 현재에도 수학교과서, 참고서 등을 집필하여 수학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2010년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 개최

2010년도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니 동문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5월 28일(금) 18시

· 행 사 : 1부 청관대상 시상

— 사도상 (崔泰祥/歷史53入)

— 학술상 (李琦錫/地理59入)

— 공로상 (崔容準/數學61入)

· 회 비 : 20,000원

≡ 준비 관계로 꼭 사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프레스리드호텔 19층 신세계층

2부 정기총회

(1) 결산(안 심의)

(2) 회차 개정

(3) 임원선출

國語教育科

◆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식 개최

2010년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식이 지난 1월 2일 오후 3시에 서울 코리아호텔 스타 이프룸에서 개최되었다. 李鎭植(48)인, 본회 고문(前) 동문을 비롯하여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였으며, 신후배 동문들의 새해 덕담, 정기총회,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함께 이루어진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거쳐 李昌海(71)인 동문에 이어 洪奎植(69)인, 명지전문대학 교수) 동문이 새 회장에 추대되었다.



개최하여 동문 선배들이 교단에 처음 서는 후배 교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洪奎植 회장과 朴煥久 동문(56)인, 前 서울시 교육위원을 비롯하여 6명의 선배 동문이 참여한 이날 자리에서 신규 임용 교사들은 여러 선배님의 격려사를 들으며 교사의 보람과 사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 2010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2010년 1學期 獎學金 수여식이 지난 3월 2일(화) 학과강실에서 진행되었다.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자 동문의 고문인 李慶百(45)인 동문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勸學獎學金과 故 鄭英淑(54)인 동문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蘊池獎學金, 故 金光樹(69)인 동문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蔚石獎學金, 李昌海(71)인 동문이 기탁한 기금으로 교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부생에게 수여되는 '나다獎學金' 수여식을 겸한 이 자리에는 洪奎植 동문 회장, 李昌海 동문을 비롯하여 모교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 신규임용 교사 초청 만찬

지난 4월 8일(목)에 동문회에서 '신규 임용 교사 초청 만찬'을

◆ 동 友 會 소 식 ◆



회장 韓恩京

◆ 여성동문회 - 정기총회 개최

지난 4월 15일 호암교수회관에서 2010년도 여성동문회 정기총회를 갖고, 제8기 여성동문의 회장으로 韓吉子(敬心·61)인 동문이 선출되었다. 이날 참석동문들은 관악구 낙성대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관장 許薰物·69)을 견학하며 천문대와 생태학습관 등을 체험학습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同窓會報 발송에 관한 案内

本 同窓會報는 每回 15,000부 정도를 인쇄 발송하고 있는 바, 住所不明 등으로 每回 500여부가 반송돼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창회에서는 반송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하고 있으나, 이는 人力 및 경비(1회 발송비 600만원 정도, 연간 2천여만원)의 낭비가 막심합니다.

이에 앞으로 주소 변경 未申告人과 會費 2회이상 未納人에게는 부득이 會報發送을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會報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서는 이점을 諒知하시고 同窓會 홈페이지(www.ansuea.or.kr)에 게재된 會報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教育監을 뽑자

- 師大 同門들이 앞장서 -

오는 6월 2일은 지방선거의 날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 및 단위 행정의 장과 의원 선출은 물론 각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함께 뽑는다.

일부 언론조사에 의하면 주민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 모든 국민 대부분은 자녀를 두고,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 교육을 책임지고 총 지휘하는 교육감의 선거에 관심이 멀어지고 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의 성패는 法제제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사람

들이, 어떻게 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教育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立身揚名이나 蓄財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教育의 首長으로 뽑는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우리 師大 동문들은 이번 教育監 및 教育委員 선거에 관심을 갖고, 가족·친지와 더불어 꼭 투표에 참여,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상직해 있는 教育界 賢達들을 해직토록 해야 할 것이다.

李相珍 (1943. 6. 12.)

◆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과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과학교육 전공(석사)

◆ 경력

- 현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
- 한국국공립사업 추진고 교장 협의회 회장 역임
- 현한국가교육정책 국민연합 상임대표
- 현미래교육연구소 이사장



2008년 2월 전교조 참교육의 허구성을 세상에 전파한 이후, 본격적인 반 전교조 활동을 위해 한국가교육정책 국민연합을 결성하고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는 한편 전교조 부패화를 위한 수십 건에 이르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활동으로 그동안 학교장의 경영권, 인사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권과 인사권을 제약하던 단체협약을 교육감에게 요구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도록 했으며 '윤동진수 합숙금지, 전교조가 불법으로 사용하던 자조관의 반합조치 등 다수의 입찰을 남기었습니다.

전교조와 교육비의 적절로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교육품질관리로 미래교육복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섰습니다. 교육감이 되면 철저한 '수업품질관리'로 교원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교의 자율화, 특성화, 다양화를 통하여 모든 학생이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저소득층의 교육자금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와 교육금융채권의 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李元熙 (1952. 3. 5.)

◆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 71학번

◆ 경력

- EBS(언어, 논술) 강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1952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했습니다. 스물둘, 민청학련사건으로 수감이 되어 스물여덟, 비모스 바리던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삼선중, 서울사대부중, 강일중, 양재고, 경북고, 잠실고)을 하며 서른둘,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EBS(언어, 논술)강사로 뽑혔고, 서른다섯,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강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교육자의 본질이 흐려질 듯해 전교조 가입을 거부하였고, 창와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회에서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선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혁신특별위원장으로 고용을 바꾸었습니다. 선다섯, 2007년에 한국고중 60년만에 첫 정교사 출신 회장이 되었습니다. 20(만교원이 직접 선출) 선일곱, 국무총리와 함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의 위원이 되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방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 나은 학교를 만들고자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주도하였습니다. 선여덟, 교육문제, 이세는 학교에서 풀장내고자 서울시교육감이 되려합니다. 사교육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나라의 인재를 나라에서 키워낼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내겠습니다.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까지 모든 교원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원스프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비교원들을 퇴출시키고 실력이 있는 교원들은 인센티브로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겠습니다. 이원회가 국민들의 원대로, 희망대로 교육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朴明基 (1958. 12. 17.)

◆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 78학번, 동 대학원 졸업
- 미국 North Carolina주립대학교 (교육학 박사)

◆ 경력

- 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제5대 서울시교육위원
- 제3대 서울시교육위원(부위원장) / 제4대, 제5대 서울시교육위원

전직 중학교 교사로, 교육학자요,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



학의 교수로, 두 아이의 학부모로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우리 교육이 알고 있는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아 오랫동안 깊이 고민하였던 제가 서울 교육 혁신의 기회를 내걸고 시작한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한지도 어언 12년 여가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속에서 나름대로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 애를 썼지만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만족할 만큼 서울교육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제 마음 늘 무겁습니다.

젊은 서로 손을 잡고 만들어가는 것이고, 희망은 모두가 뜻을 모아 이루어 내는 것처럼 서울교육의 혁신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노력으로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깨어있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서울교육혁신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서울시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상황

- 강호봉(姜鎭鳳) / 數學 · 58人

직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경력 : 참신증, 참신교 교장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제5대 전반기 외장)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상황

- 정진곤(鄭鎭坤) / 教育 · 69人

직업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경력 :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현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인천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상황

- 나근형(羅根炯) / 數學 · 58人

경력 : 부원중, 인일여고 교장
인천시 6,7대 교육감

- 김 실(金 實) / 地理 · 60人

직업 :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경력 : 인천교육위원회의장
인천부평고등학교교장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국민연합은 이원희씨 선정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로 이원희 후보(전 한국교육회장이 최종 결정됐다. 30여 보수·교육단체들이 모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이하국민연합)은 6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서울시 반(反)진교조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대회'를 열고 이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정했다.

이원희 후보는 수리안실에서 "30년을 교직에 봉직해왔고 3대째 교사 집안이다. 대한민국 서울을 세계 제일의 교육허명을 이룩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또 "단일화 발표를 선언한 후보들과 중도 성향 후보들을 함께 안고 가 반드시 최야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단일화에 참여한 7명 중 김정희 후보를 제외한 5명이 정선결과에 불참 또는 불복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보수 단일화 시도가 오히려 분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수 후보 중 김영숙, 남승희 후보가 처음부터 국민연합 단일화에 참가하지 않았고, 지난 3일 이후 권영은, 이상진, 이정

복, 김호성, 김성동 후보가 차례로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에 따라 '보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서울교육감 선거에는 보수 후보가 최소 5명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며 '보수 난립' 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합 관계자는 "법정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경선에 불복하거나 이탈한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고 단일 보수 후보'인 이원희 후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합의해놓고 기본적인 불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초등학교 회장 선거도 이렇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조선일보 5월 7일 A14면에서〉

동창회비를 납부합니다.

본 동창회는 師大 전체 동창회의活性化는 물론 各科 同門會, 市道支會 등의 활성화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간의 동호회 활동, 친목대회, 동문과 동문간의 교류지원방안 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로번호 : 7521964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변주선)

회비내역

회 지문우편 : 100,000원 이상

회 회 장 : 2,000,000원 이상

회 부 회 장 : 500,000원 이상

회 감 사 : 300,000원 이상

회 상임이사 : 200,000원 이상

회 이 사 : 50,000원 이상

회 일반회비 : 20,000원 이상

회 평생회비(1회) : 200,000원

회비 납부자 명단 (2009. 10. 28. ~ 2010. 2. 28.)

평생회비(20만원)

김일순(동·60)

조정휘(화·60)

김이주(가·69)

이사회비

(국어)

손수일(49)

5만원

전성택(54)

5만원

구인환(59)

5만원

(영어)

김대승(70)

5만원

손종국(59)

5만원

(물리)

김신주(65)

5만원

(생물)

주학선(86)

10만원

일반회비

(교육)

남한서(50)

3만원

이석주(59)

3만원

신철재(60)

3만원

김태수(63)

3만원

권문현(74)

3만원

이희영(54)

3만원

이옥순(59)

3만원

(지리)

차도관(59)

3만원

최정희(63)

2만원

권혁민(80)

3만원

(음악)

박병기(80)

3만원

(수학)

강신복(69)

3만원

김광수(69)

3만원

(물리)

하상기(74)

3만원

안정훈(03)

2만원

(화학)

김영근(88)

2만원

이만기(70)

2만원

(생물)

김중호(90)

2만원

최병주(86)

2만원

(가정)

신혜순(49)

2만원

(체육)

이강철(87)

2만원

송동수(87)

3만원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6305 (변주선)

천재교육의 協贊을 비롯한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모금 총액은 약 3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리 참여하지 못하신 동문들께서는 역수의 과다에 재념치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관 건립 기금 신규 출연자 (2009. 4. 4. ~ 2010. 4. 30.)

(경사)

120만원

-100만원

전성택(74)

-10만원

신도환(80)

-5만원

이만준(74)

800만원

-530만원

이복순(84)

-100만원

김복희(79)

-100만원

박지영(87)

박지영(87)

이동수(85)

이동수(85)

(예과)

160만원

-120만원

한성욱(84년)

-30만원

한성욱(84년)

서준우(84년)

김유선(84년)

(총무교원)

13,05만원

-1,305만원

이병준(국어44년출)

(교육회비)

39,25만원

-500만원

이희순(17)

-330만원

김희영(17)

-200만원

정연숙(8)

정희경(9)

김경숙(9)

이상주(83)

-150만원

이희영(8)

유진경(17)

-130만원

박병진(23)

-100만원

김영욱(2)

김동규(2)

김승환(10)

이진교(12)

최희안(86)

노옥경(23)

-30만원

김정희(86)

최희안(86)

윤정희(88)

박성4(20)

홍신영(20)

박동훈(24)

-40만원

이동수(25)

-30만원

이병국(28)

김자태(8)

이동재(20)

김우경(20)

이범기(30)

김영남(38)

-20만원

박민서(5)

김연경(10)

김영호(10)

김영호(12)

이정호(12)

정만호(20)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진료 시스템

갑상선센터

전문병원 중 갑상선수술 전국 1위(대학병원 포함 16위)
주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내 최초 갑상선 전문병원
세계 최초 갑상선 중앙 치료법 개발
수술 없고 통증없이 갑상선 중앙 절제술
고주파 절제술(RF)



소화기내시경센터

편안한 내시경을 위하여 전문적 직급 검사
선계술 경막내시경, 캡슐내시경
조음막, 위, 대장 one - stop 서비스

위, 십이지장 : 위 용종 및 조기 위암의 내시경적 절제술
대 장 : 용종 및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적 절제술
역 도 : 장폐쇄 증상의 치료, 각종 위도역 점막의 직장
경, 양도 : 양막 및 양도 결핵의 내시경적 치료



척추.관절센터

고위험수술 경험 많은 의료기관 『인공관절수술』 부분선정
주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리와 다리를 해치는 편안하게 하는 병원
관절이 웃게 하는 행복한 병원
여러에서 척추까지 자유를



종합건강검진센터

자신 검사받아야 최고의 의료진이 편안하고 정확한 검진 실시
건강관리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결과 상담
핵심 전문과의 연계 및 사후관리
핵심교부 검진 사항

